

‘호랑이군단’ 데이터·전문성으로 체질 개선 나선다

손승락 코디네이터 영입 ... ‘호크아이’ 설치 모든 상황 데이터화
MLB식 데이터 통해 승률 높이고 부상·멘탈 관리로 경기력 향상

새로 판을 짠 ‘호랑이군단’이 데이터와 전문성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다.

미국 메이저리그(MLB) 식 데이터를 통해 승률을 높이고, 부상·멘탈 관리로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KIA가 12일 KBO리그에서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던 손승락을 전력 강화 코디네이터로 영입했다.

손승락 코디네이터는 주요 트레이닝 데이터에 선수 시절 경험을 더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은퇴 후 국내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야구 공부를 해온 손 코디네이터는 오는 2월 미국 LA다저스 메이저리그 캠프 코치 연수에 참여한다. 그는 2개월 연수 과정을 마친 뒤 KIA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손승락 코디네이터는 “현장 경험과 직감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 요소지만,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 및 전술 활용이 조화를 이룰 때 더욱 빛날 수 있을 것”이라며 “메이저리그 연수를 통해 선진 야구와 데이터 분석에 대해 배우고, 구단의 데이터 분석과 현장을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KIA는 올 시즌을 ‘변화의 해’로 삼았다.

먼저 사장·감독·단장을 모두 교체하고, 조직개편에 나서 인적 자원을 쇄신했다. 이어 새로워진 조직이 현대 야구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KIA는 데이터 기반 전력 분석 강화를 위해 시

즌부터 영상 기반 트레이닝 장비인 ‘호크아이’를 활용한다.

호크아이는 경기장에 설치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해 구장 안 모든 상황을 감지하고 데이터화하는 트레이닝 장비로, 모든 선수의 역학 정보와 투구 정보, 타구 궤적 및 수비 지표 등 다양한 정보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MLB는 2020년부터 30개 구장에 호크아이를 설치하고, 공식 트레이닝 플랫폼으로 이용하고 있다.

KIA는 지난 12월 30일에는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와 인공지능(AI) 관련 연구 및 산학 협력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KIA와 센터는 ▲야구 분야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과학 야구를 위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과 활용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선수단 교육 등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야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이기는 야구’를 위해 데이터를 가미한 KIA는 최상의 경기력을 위한 노력도 더했다.

KIA는 선수들의 부상 관리와 근력 강화를 위해 스트레NGTH&컨디션(Strength&Conditioning-이하 SC) 코치 2명을 영입해 경기력 향상에 나선다.

이번에 영입된 김동후 SC코치는 럭비 국가대표팀과 상무, LPGA 선수 개인 트레이너 등 다양한 SC코칭 노하우를 지녔다. 박성준 SC 코치는 크로스핏 트레이너 등 고강도 체력 훈련 전문가다.



KIA 타이거즈의 전력 강화 코디네이터로 선임된 손승락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는 또 김인호 동국대 체육교육학과 교수와 황승현 경북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교수를 SC 및 심리 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체계적으로 선수들의 체력 및 멘탈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SC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김인호 교수는 선수단

부상 방지 및 스포츠 퍼포먼스 향상 분야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 황승현 교수는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 방지, 멘탈코칭 등 분야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KIA 관계자는 “손승락 코디네이터의 선임으로

트레이닝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호크아이’ 활용 폭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트레이닝 파트 또한 SC, 멘탈 등으로 세분화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깊어지는 손흥민의 부상 ... 깊어지는 벤투·콘테의 근심



손흥민

축구 대표팀

월드컵 최종예선
27일 레바논 원정
2월 1일 시리아전
“돌아오라 캡틴”



벤투 감독

토트넘

리그컵 준결2차전
프리미어리그
‘에이스’ 없는 경기
“매우 안타깝다”



콘테 감독

‘에이스’ 손흥민(30)의 부상 이탈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홉스퍼의 근심이 깊어 간다.

토트넘을 이끄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손흥민이 이탈 중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내다봤다.

콘테 감독은 11일(이하 현지시간) 첼시와 2021-2022 카라바오컵(리그컵) 준결승 2차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복귀에 대한 소식은 A매치 휴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5일 첼시와 리그컵 준결승 1차전(토트넘 0-2 패)을 치른 뒤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선발로 출전해 후반 34분까지 뛰던 경기 다음 날 다리 근육 통증을 호소했고, 9일 모어컴과 2021-2022 잉글랜드축구협회(FA) 컵 3라운드에 결장했다.

콘테 감독은 손흥민의 상태에 대해 “근육 문제다. 이전에 말했듯 다소 이상한 상황이다. 경기 중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 날 통증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 팀에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 다들 아실 것이다.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토트넘은 한국시간으로 13일 오전 4시 45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첼시와 리그컵 준결승 2차전 홈경기를 치른다.

1차전에서 0-2로 패한 만큼 결승 진출을 위해 대역전극이 필요하지만, 손흥민의 결장으로 전력에는 큰 공백이 생겼다.

콘테 감독의 예상대로 손흥민이 2월 초에 돌아온다면, 한국 축구대표팀도 ‘캡틴’ 없이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7·8차전을 소화해야 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7일 레바논 원정으로 최종예선 7차전을, 다음 달 1일에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시리아와 8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광주FC, 미드필더 박한빈·수비수 이상기 영입

광주FC가 미드필더 박한빈(24)과 수비수 이상기(25)를 대구FC에서 영입했다.

중앙 미드필더인 박한빈은 183cm·80kg의 탄탄한 피지컬을 활용한 대인방어와 태클, 커버 플레이가 뛰어나다. 왕성한 활동량과 투쟁심으로 상대 공격 차단에 감정을 보이며, 안정적인 빌드업으로 공수 연결고리 역할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용인 신갈고 시절 연령별 대표팀에 소집된 박한빈은 2015 발렌틴 그라나트 U-18 친선대회, 2015 수원 JS컵 축구대회 등에서 맹활약하며 20 경기를 소화했다.

2016년 대구를 통해 프로 무대에 입성한 그는 4 시즌을 뛰면서 팀의 중원을 책임졌다.

2020년 체코 1부 팀인 FC슬로반 리베레츠로 임대 때 떠나며 해외 진출에 성공했지만 코로나19여파로 리그가 중단되면서 대구로 복귀, 팀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과 역대 최고 순위(3위) 달성에 이바지했다. 통산 86경기에 나와 4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179cm·78kg의 이상기는 탄탄한 수비력과 함께 빠른 스피드, 정확한 크로스가 장점인 우측 풀백이다. 활동량이 많은 그는 오버래핑에도 능하며, 잉여까지 소화할 수 있다.



이상기(왼쪽)와 박한빈

이상기는 포항공고-영남대를 거쳐 2017년 우선 지명을 통해 포항스틸러스 유니폼을 입었고, 프로 첫해 28경기에 나와 주목을 받았다.

이후 상무와 대구를 거쳐 84경기에 출전해 4골 4도움을 장식했다.

박한빈과 이상기는 “광주는 언제나 뜨거운 패기와 열정, 탄탄한 조직력이 돋보였던 팀이다. 이 팀의 구성원이 돼 기쁘다”며 “좋은 경기력은 물론,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승격이라는 짜릿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조코비치 “유소년 행사 때 코로나19 양성 몰랐다”

호주 입국 과정 적극 해명

남자 테니스 단식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호주 입국 과정에서 불거진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조코비치는 12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과 관련한 저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 해명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조코비치는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5일 호주에 도착했지만,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으로 비자가 취소되며 10일까지 호주 멜버른 시내 시설에 격리됐다.

법적 대응에 나선 조코비치는 10일 호주 연방 법원으로부터 호주 정부의 비자 취소 결정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호주 정부가 다시 이민부 장관 직권으로 조코비치의 비자 취소를 검토 중이기 때문에 호주 오픈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다.

조코비치는 지난해 12월 16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백신 접종 면제 요건에 부합한다는 입장이지만 호주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다음 날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시내에서 유소년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다수 발견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조코비치는 이에 대해 “그 행사 직전에 신속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음성이 나왔다. 유소년 행사에 참석했을 때는 코로나19 양성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소년 행사가 끝난 뒤에 전날인 16일 받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조코비치는 18일 프랑스 스포츠 매체 레퀴프와 인터뷰는 확진 사실을 알고 진행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이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했고, 사진 촬영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며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조코비치는 또 호주 입국 신고서에 ‘최근 2주 사이에 다른 나라를 여행한 경험’을 묻는 말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이 허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니지먼트 팀에서 대신 작성한 것”이라며 “고의로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실수였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 입국 2주 전에 세르비아, 스페인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호주오픈 대신 추첨이 13일, 대회 개막은 17일인 가운데 호주 이민부는 조코비치의 비자 취소를 계속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